명장의 괘불 진수 맛본다

임석환 불화장 괘불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임석환 作, 통도사 영산회상도 모사본.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평생 불모의 삶을 살아온 임석환(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기능보유자) 불화장의 괘불 전시회가 열린다.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2관에서 열리는 제7회 붓다아트페스티벌 전통문화장인전이다. 같은 기간 열리는 2019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인 이번 전시에서 임석환 불화장이 선보이는 작품은 영산회상도, 보신불, 수월관음도, 신중탱화 등으로 모두가 괘불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설법하는 모습을 도상으로 옮긴 영산회상도는 높이 3.4M에 달하는 대형 괘불이다. 또한 수백 생에 걸쳐 쌓은 공덕으로 부처를 이룬 보신불, 물에 비친 달을 단아하게 내려다보는 수월관음, 불법을 수호하는 수많은 호법신들을 표현한 신중탱화 등이 족자 형식으로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임석환 불화장의 작품과 더불어 그의 예비 전수자들의 작품 62점도 함께 전시된다. 2018년 임석환 불화장의 '수산당문도회'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제자들의 작품을 대규모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2019년 1월부터 전수생 교육을 받고 있는 65명의 제자들이 '내 마음속의 부처님'을 주제로 그린 현대 창작불화와 전통 옻칠종이 위에 자유 주제로 그린 작품들을 선보인다. 비천도, 관세음보살도 등의 불화에서부터 사군자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불화는 불교의 교리나 부처님의 발자취, 가르침 등을 그린 그림으로,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술이다.

대표적으로 부처님이 태어나서 열반하기까지의 생애를 그린 불전도가 있고, 경전 속 이야기를 그린 그림, 사찰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 넣은 동식물의 그림 등 그 종류와 의미가 다양하다. 또한 한국불교는 이 땅의 역사와 함께 흥망성쇠를 거듭했기 때문에 시대별로 양식을 달리하며 한국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불화는 단청장에 포함돼 전승되어 오다가 2006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佛畫匠)' 단일종목의 국가지정 문화재로 분리 지정됐다. 이 때 불화장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사람은 단 두 사람으로, 故 석정 스님과 임석환이다.

임석환 불화장은 스무 살이 되던 해에 상경한 후 진관사에서 불교 미술의 대가인 혜각 스님을 만나면서 단청에 입문했다. 40여 년간 단청과 불화 분야에 매진한 끝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았으며, 후학들을 지도하는 한편 조계종 성보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석환 불화장은 "불화를 내보이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자비를 아름답게 보고 환희심을 느끼게 하고 싶은 것"이라고 전했다.

수산당문도회 역시 "선생님의 제자들이 전통재료를 사용해 채색감이나 색 발인법 등을 공부해서 내보이는 자리이므로 불자뿐만 아니라 전공자들이 본다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명상과 불교, 예술을 모두 아우르는 축제로 평가받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공예(불교공예, 전통공예, 현대공예, 도자공예, 금속공예) △건축(건축, 인테리어) △의복(승복, 천연염색, 한복) △식품(차, 사찰음식, 사찰식품, 전통식품) △수행의식(수행NGO, 장례, 사찰, 명상단체) △문화산업(디자인, IT, 여행, 출판, 미디어, 웹)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홈페이지(bexpo.kr)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2231-2013.

생명나눔, 난치병 환우 치료비 모금 자선음악회



11월 10일 나루아트센터서
올해에 처음으로 제정된
생명나눔 대상 시상식도

2부는 본격 음악회로 진행
진보라 · 주병선 · 주권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예정

난치병, 이식대기자 환우를 돕기 위한 자비의 자선음악회가 열린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오는 11월 10일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제10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난치병, 이식대기자 환우를 돕기 위한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는 환우와 가족, 의료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해마다 개최한 한다솜 희망음악회의 취지와 뜻을 이어받은 자비행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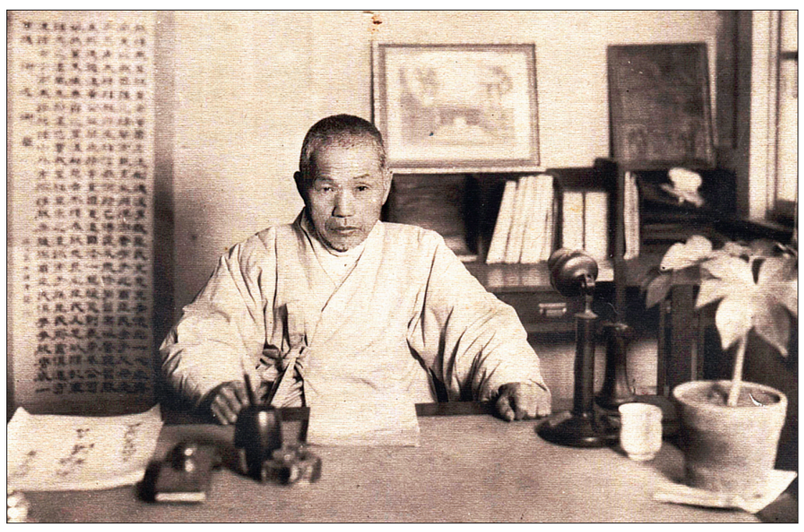
음악회는 생명나눔 홍보대사 이익선 아나운서의 사회로 약 120분간 진행되며, 1부에서는 환자치료비 전달식,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 처음 제정된 '생명나눔 대상' 시상식도 열린다. 생명나눔 대상에서는 생명나눔운동 활성화에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를 치하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음악회가 진행된다. 음악회에서는 생명나눔 산하단체 마하무용단의 한국무용 춤사위와 행복나눔 태권도연합회의 태권도 시범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주요 출연진도 화려하다. 진보라 재즈 피아니스트를 비롯해 주권기(통기타 가수), 주병선(가수), 이장학(중요무형문화재 19호 선소리산타령 이수자), 디딤소리(모듬북) 등이 다채로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나눔과 감동이 있는 자비의 법석에 많은 분들이 참석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근현대 선지식 20인을 만난다



석전 박한영 스님.

탄허기념불교博 '입전수수'展
10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호국, 개혁, 포교 등 3개 주제

한국불교근현대사 선지식들의 사진을 모은 사진전이 열린다. 탄허기념불교박물관(관장 혜거)은 10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광명전과 방산굴에서 '입전수수(入廛垂手)' 展을 개최한다.

2017년 '팔풍취부동(八風吹不動)' 전, 2018년 '성성(惺惺)하고 적적(寂寂)하라' 전에 이은 이번 사진전은 선지식들의 활동을 크게 호국, 개혁, 포교 등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3 · 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한 백용성, 백초월, 봉려관 스님, 해방 이후 대처승과 육식의 허용 등 왜색(倭色) 불교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교정화운동을 펼친 청담 스님, 수옥 스님, 포교에 힘쓴 석전 박한영, 청하 스님 등 각 사찰과 문도회의 자료 협조를 받아 수집한 스님 20분의 사진 50점을 전시한다.

관장 혜거 스님은 "한국 근현대불교사에 큰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선대 선지식들의 성향으로 인해 사진 등 자료가 유실될 가능성이 커 3개년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우리 불교계가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여 후세에 전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02) 445-8486.

박재완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사명대사 애니메이션 공모전

11월 17일까지 작품 접수
12편 선정, 오는 12월 시상

사명 대사(1544~1610)의 임진왜란 당시 활약을 재조명하는 애니메이션 경연 행사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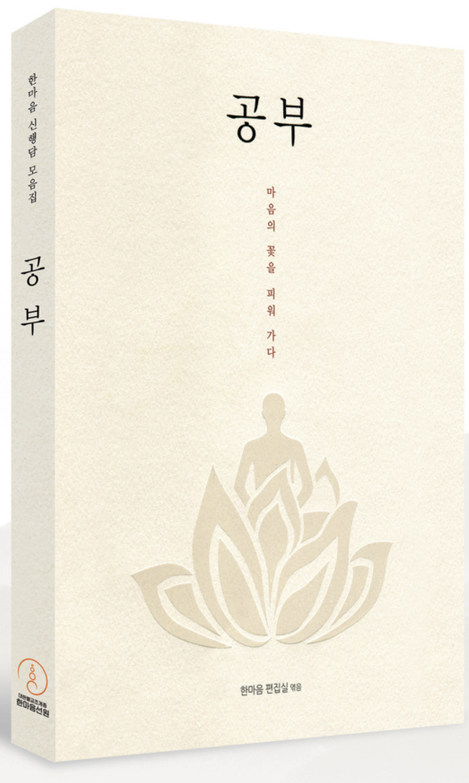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사명대사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국립중앙박물관이 BTN불교TV와 공동으로 기획한 '일본 교토 고쇼지 소장 사명대사 유묵 특별 공개' 전시를 기념해 열린다.

사명대사 애니메이션 공모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와 심사 및 시상은 청소년부(어린이 포함)와 성인부(대학생 포함)로 구별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10월 24일부터 받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애니메이션 작품과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11월 1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제출 작품 중에서 총 12점을 선정하며 청소년부 · 일반부 각각 국립중앙박물관장상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부상과 함께 수여한다. 시상식은 12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입상작 중 우수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내에서 상영된다.

신성민 기자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